중국의 섬유산업

- 인민위안고 등 고 코스트화에의 대응 모색

중국은 2006년에 섬유제품 수출이 2005년보다도 25% 증가한 1,440억 달러로 사상 최고를 경신하였다. 2007년 1~2월 누계 섬유제품 수출은 233억 8천만 달러에 이르며, 2006년 동기보다 39% 증가하여 크게 늘고 있다. 그 중에 어패럴이 44% 증가한 155억 6천만 달러, 솜, 실 및 생지가 30% 증가한 78억 2천만 달러의 실적을 올렸다. 성장이 주목되고 있는 인도의 섬유제품 수출은 중국의 1/9에 불과하여, 중국의 압도적인 우위는 변하지 않고 있다. 동시에 기업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외자 우대책이 재검토되면서 인민위안고(人民元高), 원·연료고등(原·燃料高騰), 일손 부족, 인건비 상승 등 중국 섬유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크게 바뀌고 있으므로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중국의 섬유제품 수출 - 세계의 주시받으면서도 여전히 세계 제일

2005년 7월부터의 통화 바스켓 방식(currency basket system : 주요 거래국 통화를 일정비율로 바스켓을 만들어 이 바스켓의 시세 변동에 따라 자국통화를 조정하는 방식)에 의한 중국 인민위안의 2% 절상과 그 이후의 일관된 상승으로, 절상 이전보다도 인민위안의 대미달러 시세는 6%를 넘어설 정도로 높아졌다.

2000년 전후부터 섬유 이외의 분야로 외자도입에 박차를 가하여 고용기회도 늘고 인건비가 오름과 동시에 섬유산업에서의 노동력 부족이 현실로 나

타났다. 상하이시의 경우 최저임금 월액은 2006년 9월 1일에 690위안에서 750위안으로 상승하였다. 임금상승 뿐만 아니라 종업원을 확보하기 위한 후생시설을 확충하거나 향상시키는 비용도 늘어났다. 더욱이 원유가고등(原油價高騰) 등으로 원·연료비(原·燃料費)가 코스트를 압박하고 있다. 그래서 섬유산업의 수익률은 떨어지고 있어, 기업간 우승열패(優勝劣敗)가 금년의 큰 특징이 되고 있다.

중국의 섬유산업은 만성적인 과잉 생산으로 계속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데, 실이나 생지 등 각 단계를 포함하여 고품질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봉제 관계에서는 중국으로의 일극집중(一極集中)에 대한 경계로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및 타이 등으로 생산거점을 바꾸는 기운도 보이기는 하나, 생산능력의 규모, 소재·부자재를 포함한 일관체제(一貫體制), 품질 수준,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 등 종합적인 경영력에서는 중국이 우위라고 단언하는 사람도 있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점과 패션아이템 등이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임금상승과 일손부족에 대응하고자 봉제공장이 중국의 연해부(沿海部)에서 내륙부(內陸部)로 확산되고 있다. 상하이 주변에서는 고속도로가 정비되는데 따라 안휘성(安徽省)이나 강서성(江西省) 등이 주목되고 있다. 그 외에 이제까지의 봉제산지의 주변이나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대로도 확산되고 있다. 중국의 어떤 봉제공장 간부는 “연해부로부터 공장자체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내륙부에서 봉제산지가 새로 자라고 있다. 그것도 고효율의 자동사절(絲切) 재봉기가 보급되고 있다”고 한다. 연해부에 남아 있는 봉제기업에서는 봉제공임뿐만 아니라 소재로부터 제품까지의 생산코스트가 억제되거나 서비스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큰 트렌드(trend)로는 되어 있지 않으나 자본력이 있는 기업은 한발 앞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미얀마 등에 봉제거점을 만들고 있다. 중국에서 주문을 받고, 소재도 중국에서 확보하여, 이들 나라의 값싼 노동력을 사용하여 봉제하고 있다. 인건비의 문제 뿐만 아니라 구미로의 수출규제에서 빠져나갈 수 있으며, 또한 특혜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큰 이유가 되고 있다.

2005년에 쿼터 프리가 되면서 무역마찰이 생긴 결과 중국과 EU, 중국과 미국간에 포괄적인 '섬유 2국간 협정'이 성립되었다. 2006년부터는 일부 품목에 다시 실질적인 쿼터가 설정되었다. EU와의 협정은 2007년 말에 미국과의 협정은 2008년 말에 끝난다.

협정이 끝난 후의 방향이 주목되고 있는데 '쿼터 프리로 된 2005년의 혼란을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적절한 증가를 지키도록 억제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예측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그러면서도 '일정한 규제는 남을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벌써부터 EU와의 협정이 끝난 후를 예견하고 증설하려는 움직임이, EU로 수출하고 있는 봉제기업의 재봉기 수요 동향에서 엿볼 수 있다고 한다. 우선 샘플을 작성하기 위한 재봉기의 중 로트(中 lot) 발주가 눈에 띄고 있다. 부가가치를 원하는 EU 시장에 대비하기 위하여 반자동기(半自動機)가 아주 잘 팔리고 있다. 중국이 EU로의 섬유품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유로시세가 높기 때문이다.♣